

## 문화접촉의 경험이 문학작품을 통해 구현하는 작중인물의 심리학적 접근과 고찰

고헤림\* · 양난\*\*

### 【목 차】

- |                    |                     |
|--------------------|---------------------|
| 1. 들어가며            | 3. 문학적 해석과 의의       |
| 2. 문화접촉과 심리상태의 유형화 | 1) 환상적 요소와 정체성 문제   |
| 1) 우울과 불안          | 2) 문화 접촉 지대의 사실적 묘사 |
| 2) 강박과 스트레스        | 3) 공동체의 재구조화        |
| 3) 자존감과 기타 정서      | 4. 나오며              |

### 【초록】

본고에서는 문화접촉을 통해 문화변용으로 나아가는 과정들 중 무엇보다도 문화접촉 현장 속에서의 인간의 반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는 문화접촉의 다양한 양상들을 뉴스와 여러 인터뷰 등을 통해 접하고 있다. 여기서는 소설에서 표현되는 작중인물들의 문화접촉 현장 속에서의 반응을 문화접촉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한 문학 속에서 찾는 것이며, 곧 문학작품 속에서 작중인물의 정서적 지표들이 구현되는 양상들을 통해서 고찰하고 있다. 문화접촉에 의한 문화변용, 문화충격, 문화접변의 현상들은 보다 상이하다고 여겨지는 문화권들의 접촉지대에서 보다 더 시각적으로 인식적으로 관념적으로 탐색이 가능할 것이다. 문화접경지역에 있는 화인들이 캐나다에 이주한 뒤 경험한 여러 문화적 경험들이 어떻게 작중인물에게 투영되어 나타나는지, 이들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에 대한 고찰이 연구의 핵심이 된다.

【키워드】 문화접촉, 캐나다화인, 정체성, 문화스펙트럼, 이중문화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huilin@naver.com)

\*\* 경성대학교 중국학과 조교수 (liang-nan@hanmail.net)

## 1. 들어가며

지금까지 국경은 보수적 개념에서 민족중심의 국가라는 의미를 더욱 공고히 해주거나 자국 영토의 확장을 위한 군사적 행동의 구실로서 이민족의 침범을 국경선이라는 마지노선으로 방어해주는 역할을 해왔다. 국경은 과거의 수없이 많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현재의 상태를 백여 년간 유지해 오고 있다. 다만 국가별 분쟁지역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좁힐 수 없는 간극과 갈등의 요소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탈경계, 탈민족, 탈국경의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중국은 13개 나라 등과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으면서 역사적으로 줄곧 문화접촉을 경험해왔다. 인적자원의 자유로운 왕래는 곧 국경선의 유명무실화 혹은 포괄적 의미에서의 확장을 가져다주었고, 이에 중국의 국경선은 또 다른 의미로 더욱 확장되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더 이상 지리적 의미로만 상용화되지 않고 확장되고 의미가 변화되면서 문화학적 중국을 일컫게 되기도 했다.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의미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명 가운데는 과거 익숙하게 지리적으로 불려오던 중국을 벗어난 기타 지역의 중국계 사람들을 화인으로 부르자는 주장들도 있으며 이는 한중일 삼국은 물론 영미권의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학술적으로 그 의미상 통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 지리적 의미의 연해를 통한 문화접촉이라는 개념을 앞서의 설명처럼 문화적 의미로써 더 확장된 의미로의 범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현대적 개념에서의 문화접촉이 분명히 국경을 초월해서 다발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대개 사전적 의미로의 문화접촉은 복수의 문화 간의 접촉을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문화의 재정의를 수반하며 문화변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는 문화접촉을 통해 문화변용으로 나아가는 과정들 중 무엇보다도 문화접촉 현장 속에서의 인간의 반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는 문화접촉의 다양한 양상들을 뉴스와 여러 인터뷰 등을 통해 접하고 있다. 일례로 Youtube에서 ‘Cultural Contact’로 검색되는 영상은 1, 110, 000건, ‘Cultural Difference’로 검색되는 영상은 1, 090, 000건, ‘Cultural Shock’으로 검색되는 영상은 437, 000건이며 ‘문화차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영상이 125, 000건, ‘문화충격’으로 검색되는 영상도 120, 000건 정도 된다. 한국문화(616, 000건), 중국문화(168, 000건), 캐나다문화(59, 100건), Chinese Culture(14, 700, 000건), Canadian Culture(5, 900, 000건), American Culture(27, 100, 000건) 등으로 검색되는 영상의 건수<sup>1)</sup>를 보더라도 문화접촉을 통해 사람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관심과 정도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중점을 두는 부분을 보다 구체화하자면 다음과 같다. 즉, 앞서 설명한 것처럼 문화접촉 현장 속에서의 인간의 반응을 문화접촉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한 문학 속에서 찾는 것이며, 곧 문학작품 속에서 작중인물의 정서적 지표들이 구현되는 양상들을 통해서 고찰하고자

1) 2018년 5월 29일자 Youtube 검색 기준.

하는 것이다. 문화접촉에 의한 문화변용, 문화충격, 문화접변의 현상들은 보다 상이하다고 여겨지는 문화권들의 접촉지대에서 보다 더 시각적으로 인식적으로 관념적으로 탐색이 가능할 것으로 가정한다. 서론의 첫 부분에서 가져 온 학술적 연구 개념으로서의 화인<sup>2)</sup>을 여기서도 차용을 하면서 보다 치열한 문화접경지역에 있는 화인들을 연구의 1차적 대상으로 한다. 동시에 동양 문화권의 대표로서의 중국과 비교적 문화스펙트럼에서 먼 거리에 위치해있는 것으로 통념적으로 인식되는 서양 문화권의 대표로서의 영미권 국가 가운데 한 곳을 경험한 화인을 부차적 조건으로 상정한다.

국내 사회학 쪽의 연구에서는 한국 내 중국인들의 문화적응 혹은 문화접촉에 관련된 성과들도 있으나 ‘중국’, ‘문화접촉’, ‘문학’, ‘소설’의 키워드로 교차검색해서는 유효한 연구 성과들을 찾기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문화학적 중국학의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큰 틀에서는 변증법적인 사례 수집의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여러 국가들에서 화인들이 문학단체와 협회 및 학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화인 작가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가운데는 동남아 화인, 미국 화인, 캐나다 화인, 유럽 화인, 한국 화인 등등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비교적 최근에 번역되어 소개된 캐나다<sup>3)</sup> 화인들을 변증법적 사례의 하나로서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에 한국 내에 학술적 연구로서는 소개된 바 없는 캐나다 화인들을 동일하게 연구 범주로 끌어오는 것은, 향후 보다 귀납적으로 세계의 틀 속에서 문화접촉 현상을 문학을 통해 잘 이해할 수 있는 유의미한 사례로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2. 문화접촉과 심리상태의 유형화

문학을 통한 문화접촉 현상의 고찰과 작중인물을 통한 문화접촉 경험의 유형화에 앞서 2장에서는 문화적응이라는 개념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문화적응의 개념은 사회과학

2) 국내 화인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북미 화인화문문학의 디아스포라문학적 특징』(고혜림, 2013), 「글로벌리즘과 화인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고혜림, 2017), 「화인화문문학의 세계와 세계문학적 가능성에 대한 연구」(고혜림, 2017) 등에서 ‘화인’의 개념은 참고할 수 있다.

3) 캐나다 땅은 10세기경 처음 유럽에 알려졌는데, 14세기 후반 영국이 이 지역을 탐험할 당시 소수의 인디언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며, 캐나다라는 지명은 인디언 이로코이족의 말인 카나타(Kanata, 마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 땅은 수많은 침략자와 약탈자 그리고 식민 국가에 의해 장기간 침탈과 식민지화를 겪었다. 16세기 이래 영국 및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기 시작했으며, 1763년 영국이 프랑스와 맺은 파리조약 이후 영국의 단독 식민 상태로 있다가 1867년 캐나다자치령으로 독립했다. 1951년 정식으로 국명을 캐나다로 변경하고, 1982년 영국과의 법적 예측관계마저 끝내면서 비로소 명실상부한 주권 국가의 면모를 갖추었다. (……) 캐나다 총 인구 3500만 여명 가운데 화인은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18세기 후반부터 캐나다에 이주하기 시작했고, 특히 19세기 중엽 아편전쟁 직후에 대규모로 이주한 화인들은 캐나다의 태평양 철도 건설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그러나 그 뒤 노동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는 등 원인으로 현지인들의 화인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면서 화인은 갖가지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들의 새로운 이주 역시 강력히 규제되었다. 캐나다에 대한 개관에 대해서는 번역판 캐나다 화인소설선의 해설 부분을 참고. 김혜준 외, 『동생이면서 동생아닌: 캐나다 화인소설선』, 지만지, 2016, pp.365-366.

자인 Leonard Broom, Bernard J. Siegal, Evon S. Vogt, James B. Watson 등의 인류학자들에 의해 주장된 것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이들은 문화적응이란 둘 이상의 문화가 만나면서 일방적인 변동 혹은 직접적인 전달의 결과에 의한 것이라 정의내린 바 있다. 반면 Gordon M. M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사회로의 동화 초기에 생기는 것으로 설명했다. 대개 문화접촉과 적응의 단계는 접촉-갈등-해결의 순차적 과정을 겪는 것으로 짐작되고 있으므로 여기서 접촉 시기란 단순히 상이한 문화 간의 접촉의 초기 단계를 의미할 수 있다. 갈등의 단계는 상이한 문화 간 힘의 균형에 따라 이주자들이 변화의 갈등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 해결의 과정에서는 문화적 동화, 통합, 분리, 해체 등의 방법으로 상황이 나뉘게 된다.<sup>4)</sup> 본고에서는 앞서 서론에서 밝혔다시피, 중국, 문화접촉, 문학, 소설을 확장시켜 각각 화인, 문화스펙트럼의 양극단의 상이한 문화 간의 접촉, 캐나다 화인문학, 캐나다 화인소설로 설명한다. 이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문화접촉의 심리상태를 유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정신적 이상상태나 장애상태를 심리적 원인론이 있는데 이는 19세기 후반의 Sigmund Freud의 정신분석학<sup>5)</sup>을 통해 보다 본격화 된 바 있다. 이 점은 작품과 더불어 다시 살펴보겠다.

캐나다 화인문학은 북미 화인문학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지금까지 100년 남짓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캐나다 화인문학과 캐나다 화인 이주의 역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초기 캐나다 화인문학에 있어서는, ‘先僑壁詩’라 불리던 시 종류의 문학 형태가 범람했다. 이는 밴쿠버 빅토리아의 ‘猪仔屋’ 담벼락에 남겨 썼던 시들을 일컫는 것이다. 화인문학의 진정한 발전은 20세기의 1960, 70년대에 홍콩으로부터 이주한 일단의 작가들에 의한 것을 기점으로 잡는데, 이들은 캐나다 이주 이후 캐나다 화인문학의 문단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다 주었다. 黃寬達, 葛逸凡, 亦舒, 馮馮, 盧因, 洛夫, 葉嘉寶와 같이 캐나다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을 쓰는 작가들도 등장했는데 이들이 곧 캐나다 화인 소설의 첫 번째 흐름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와 80년대 초 신이민 화인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자 張翎, 李彥, 孫博 등의 작가들이 등장하여 또 한층 캐나다 화인문단을 다채롭게 만들었다.

캐나다에서의 화인문학단체들은 1980년대 무렵부터 출현하기 시작했다. 밴쿠버를 중심으로 활동한 단체들로는 加拿大華裔作家協會(1987), 加拿大華文作家協會(1990년대 중반), 加華筆會(1990년대 후반), 漂木藝術家協會(2003), 大華筆會(2005) 등이 있다. 토론토를 중심으로 활동한 문학단체들로는 加中筆會(1993), 多倫多華人作家協會(1994), 魁北克華人作家協會(1998) 등이 있다. 이 가운데서도 보다 일찍 설립되고 활동이 활발하며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은 1987년 설립된 加拿大華裔作家協會이다. 加拿大華裔作家協會의 발기인은 盧因, 梁麗芳, 胡意梅, 陳麗芬 등이 있다.

1990년 이후 香港作联에 있던 陈浩泉 역시 캐나다로 이주하였는데, 이 역시 캐나다의 문단

4) 윤영주, 『한국체류 중국동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1, pp.21-22 참고.

5) Freud는 저서인 『꿈의 해석』(1900)에서 이상행동은 무의식적인 억압이라는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다는 정신분석학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했다. 본고에서 볼 단편소설들 가운데는 문화접촉이라는 외부로부터 야기된 억압적 상황이 심리적으로 전이되면서 여러 형태의 유형화할 수 있는 불안정한 심리 상황들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에 큰 장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후 홍콩, 타이완, 동남아시아 등지의 작가들도 이주해오면서 加拿大華裔作家協會를 중심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화인 작가들은 캐나다의 신문, 이주 전 거주지의 신문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 주로 활동했다. 1990년 1월 加拿大華裔作家協會는 『大漢公報』를 통해 ‘캐나다문학(加華文學)’ 격월간을 발간하기 시작했고, 1997년부터 Simon Fraser University의 David Lam International Communication Center와 밴쿠버 중화문화센터와 협력하여 제 9차 문학좌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화인 문학의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加拿大華裔作家協會의 문학 성과 역시 상당히 풍부하다. 캐나다 화인 작가 시리즈라 불릴 수 있을 만한 작품집들이 연달아 출판되게 된 것이다. 『楓華文集』(1999), 『白雪紅楓』(2003), 『楓雨同路』(2010), 『楓景這邊獨好』(2013) 등이 바로 성과물들이다. 이 외에도 劉慧琴이 펴낸 산문집 『楓雪篇』(2006)와 陳浩泉이 펴낸 평론집 『楓華正茂』(2009), 그리고 陳浩泉과 梁麗芳이 공동으로 펴낸 캐나다 화인 문학상 작품집 『楓姿綽約』(2014) 등이 있다. 물론 개별 작가들이 산문에서 소설과 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출판한 성과들도 적지 않다.<sup>6)</sup>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작품들은 이와 같은 성과물들 가운데 추려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본고는 캐나다 화인 소설 가운데 국내에 번역되어 소개된 작품들 16편이 일정 부분 대표성을 가지고 최초로 한국에 소개된 것으로 보고 이 작품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작중인물의 심리상태를 유형화하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그 대표성과 선정의 당위성에 관해서는 번역판 『동생이면서 동생 아난: 캐나다 화인소설선』의 해설<sup>7)</sup>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소설들은 캐나다 화인 작가들의 비교적 최근-21세기 이후-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캐나다 작가들을 살펴보면 주로 ‘加拿大華裔作家協會’<sup>8)</sup>를 중심으로 주요한 활동들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들이 함께 펴낸 책 陳浩泉 編의 『楓雨同路: 加華作家小說選』(Burnaby, B. C.: 加拿大華裔作家協會, 2009)에서 편저자인 陳浩泉이 직접 선정한 작품을 위주로 하고 있다. 세 번째, 작품들은 캐나다 화인의 삶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으로 우선 선정하면서 여성, 남성, 청년, 중장년, 신진 작가와 원로 작가 등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이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표적으로 번역·소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정도의 대표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다.

한국어 번역판 캐나다 화인소설선에 수록된 작품들은 우선 작중인물을 중심으로 심리상태를 유형화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우선 캐나다 화인소설선의 단편소설들은 총 16편으로, 馮湘湘 「遺孀」, 阿濃 「永久的秘密」, 葛逸凡 「我們的兒子跟別人的不一樣」, 陳麗芬 「尋夢園之軍墾農場」, 盧因 「爐邊傳奇」, 陳華英 「鼯鼠爲媒」, 張翎 「警探理查遜」, 林婷婷 「美麗的錯誤」, 孫博

6) 앞서의 내용은 梁麗芳의 「華人文學團體在中加文學交流上的民間角色: 以加拿大華裔作家協會爲例」(『華文文學』, 2014.05, 第124期, 2014, pp.103-106)와 汪銳의 「加拿大新移民作家文化身份研究: 以“多倫多小說家群”爲例」(華中師範大學論文, 2016.05, p.9), 李未醉의 「加拿大華僑與華文文學」(『桂橋刊』, 2005年第1期, 2005, p.18)을 참고.

7) 김혜준 외, 『동생이면서 동생 아난: 캐나다 화인소설선』, 지만지, 2016, pp.365-369 참고.

8) 창립 당시에는 ‘加拿大華裔寫作人協會’라는 이름이었다가 1990년대 초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했다. 이후 加拿大華裔作家協會와 관련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http://www.ccwriters.ca>), 김혜준 외, 『동생이면서 동생 아난: 캐나다 화인소설선』, 지만지, 2016, p.370.

「生死之間」, 李彥「白喜」, 陳浩泉「他是我弟弟, 他不是我弟弟」, 汪文勤「姓甚名誰」, 亞堅「抉擇」, 慧卿「入門」, 曹小莉「賣車大王愛德華史密斯先生」, 劉慧琴「是誰敲響了喪鐘」 등이 있다. 대상 작품들에 주된 정서로 나타나는 것을 크게 구분지어 우울과 불안, 강박과 스트레스, 자존감과 기타 정서로 구분짓는다. 작중인물들의 현실반영성 정도는 작가들의 문화접촉적 체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작중인물들의 현실반영과 작가의 문화접촉의 경험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하고 있다.<sup>9)</sup>

그리고 이들의 정서는 작품을 통해서 병리적 단계이기보다는 정서적인 수준에서의 이주민의 심리상태로 비교적 잘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 1) 우울과 불안

이중문화의 접경지대에서 이주민들은 여러 형태의 심리적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이 가운데서도 이념이 다른 국가의 문화접촉과 문화적 자존감의 하락과 불안을 잘 드러내는 작품으로는 「我們的兒子跟別人的不一樣」가 있다. 葛逸凡<sup>10)</sup>의 이 작품에서는 부모 세대의 이민자가 아들 내외의 감언이설에 속아 가진 재산을 모조리 아들 부부에게 뺏기다시피 하고는 자신들의 처지가 참으로 ‘우연히’ 지금과 같아졌다고 위안을 한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도 자신들을 데리러 오겠다고 하다가 오지 않는 아들 부부에 대해 “우리 아들은 여느 집 자식과는 다르다”라는 공허한 믿음의 주문을 자기 암시적으로 외친다. 이들 부부에게는 아들 부부의 재산 편취에 의한 경제권 상실과 생활보호대상자로서의 전락이라는 분명한 불안요소가 있다. 중국문화적 관점에서 주변의 화인 이웃들은 절대 재산을 미리 다 쥐버리지 말 것을 충고하나 부부는 자신들의 모든 삶의 경제권을 빼앗기고 우울한 정서 상태에서 안정적이지 않은

9) 而早在二战之前, 加拿大平民百姓对华人的看法就开始改变, 在大萧条中, 劳工组织认识到白人和亚裔工人的共同敌人是有意压低亚裔工人工资、制造分裂的雇主。具有讽刺意味的是, 导致华人地位提高的最重要因素是人类历史上一场最惨绝人寰的灾难——第二次世界大战, 因为在二战中, 加拿大和中国是并肩作战的盟友。到50年代末, 加拿大各省和联邦议会废除了所有针对加籍华人的歧视性条例。新移民法的最初受益者来自香港。20世纪70年代, 当加拿大经济繁荣, 饭碗易谋之际, 不少华人告别香江, 来加拿大求职。为数更为众多的香港移民于80年代接踵而至。这些因恐惧回归大陆而踏上不归路的港客别有一番风貌, 他们的财力使加拿大白人开始对华人刮目相看。大陆移民潮始自20世纪80年代, 改革开放的中国对外敞开了国门。当时的大陆人多为靠奖学金求学的留学生。改革之初, 大陆人尚不富足。留学生中不少人虽学富五车, 却囊中羞涩。90年代之后, 当年的学子, 大多功成名就, 有了公民权, 融入主流社会。此时来加的大陆人, 多是技术移民和年青一代的留学生。但尽管如此, 就移民法而言, 亚裔人, 包括华人在内, 远远不是同欧洲移民平等的。根据1952年移民法, 加拿大对欧洲白人几乎不加任何限制, 而对东方人却只开启了一条窄窄的门缝。虽然在20世纪五六十年代, 加拿大各级政府逐步废除了种种针对华人的歧视性法律, 使之在移民就业等方面开始享有平等的权利。但在白人主流社会眼中, 华人仍是“异类”, 在白人文化霸权下世代生存的华人们耳濡目染, 不免也认同了主流社会对自己的看法。华人对主流文化的妥协中却也包含着反抗。(趙世玲, 「面對文化歧視的加拿大華人」, 『思想戰線』, 第5期第31卷, 2005, pp.95-99 참고)

10) 河北省 樂亭縣 葛逸 金성춘 출생, 1946년 고향을 떠나 北京으로, 1년 후 上海로, 2년 후 臺灣으로 이주. 1965년 가족들과 캐나다로 이민. 17세에 글쓰기를 시작했고 1950년대 臺北의 『藍星詩頁』에 시를 발표했으며, 잇따라 수필과 소설을 발표했다. 캐나다 이주 후 10여 년간 장편소설 『金山華工滄桑錄』을 완성. 1960년대 초 『文壇雜誌』제 1회 단편소설에서 1등상을 수상, 1989년 제1회 해외화인문학상 대상 및 2008년 冰心작가상을 수상. 저서 『欣欣向榮』(1972), 『加拿大的花果山』(1991년 초판, 2004년 재판) 등이 있음. (김혜준, 위의 책, pp.383-384 참고)

생활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Freud식의 해석에 따르면 작중인물들에게서 보이는 우울과 불안은 미분화된 자아상태로부터 유발되는 남근기 고착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소설에서 부모가 보여주는 자녀에 대한 기대와 무한한 믿음과 신뢰는 유교문화권에서는 오랫동안의 역사를 거치면서 통념화된 문화의 토대의 하나이다.

張翎<sup>11)</sup>의 『警探理查遜』은 경찰 리차드슨의 연인인 중국계 이민 여성 즈경의 이야기이다. 리차드슨은 자신이 맡았던 어떤 사건을 통해 즈경을 만나고 결혼하게 되는데, 시종일관 백인 남성의 관점에서 그녀의 심정을 헤아리고 보호하고자 한다. 반면에 즈경은 화인 여성의 시각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해석하고 대응한다. 두 사람이 경험하는 부부간 문화충돌은 이중문화간의 문화충돌의 개인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 소설을 통해 캐나다화인 작가가 경험한 혹은 허구적으로 재구성해 낸 캐나다화인과 기존 캐나다인들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리차드슨과 즈경 사이는 문화접촉의 혼종적 공간에서 야기되는 우울과 불안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

林婷婷<sup>12)</sup>의 『美麗的錯誤』의 주인공 황슈시옌은 캐나다로 이주해온 화인 1세대이다. 어느 날 병원에서 걸려 온 한 통의 전화를 통해 검사 결과 암이 의심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이후 그녀는 각지를 다니며 검사와 치료, 검사와 치료를 반복한다. 황슈시옌이 먼 타지에서 겪는 육체적 질병, 심리적 반응, 현실적 대처를 보면, 건강과 직결되는 죽음에 대한 불안함이 주된 정서로 묘사되고 있다. 그 모든 순간에도 이주국에서의 의료시스템에 대한 불안감, 고향에 있었으면 달랐을 것 같은 마음 등이 복잡하게 나타난다.

## 2) 강박과 스트레스

또 다른 유형의 심리 상태로는 이주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스트레스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적 경험이 있다. 陳麗芬<sup>13)</sup>의 『尋夢園之軍墾農場』의 薇姐는 캐나다 이주 이후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이 과거 군대농장에서 고생한 경험을 다시 소환해낸다. 그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경험들이 현재의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 소환된다. 물론 과거의 경험은 결국은 일에 대한 숙련으로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아름답고 추억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용감하게 운명을 개척하는 그들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가 짐 지워져 있는 것

11) 浙江省 溫州 출신. 1983년 復旦大學을 졸업. 1986년 캐나다로 유학을 떠나 이후 토론토에 거주함. 1990년대 중후반부터 창작활동을 시작하여 주요 작품으로 『郵購新娘』, 『望月』, 『交錯的彼岸』 등이 있음. 2000년 제7회 시월문학상, 2003년 제2회 세계화문문학우수산문상, 2005년 제1회 캐나다 袁惠松문학상, 2006년 제4회 인민문학상 등 상을 수상. (김혜준, 위의 책, pp.387-388 참고)

12) 福建省 晉江출신. 필리핀 마닐라에서 태어난 화인 2세대. 필리핀대학에서 문학석사 학위까지 취득 후 1980년대 필리핀 문단에서 활약하다가 1993년 캐나다로 이주. 신문집 『推車的異鄉人』으로 타이완 화교연합총회에서 주관하는 화문저술상 산문 부문 대상 수상. 캐나다로 이주 후 창작을 하면서 문학활동에 힘을 쏟아 加拿大華人作家聯合會 회장 및 加拿大華裔作家協會 회장 역임. 현재 해외화문여성작가협회 부비서장, 국제작가연합회 필리핀센터 이사, 캐나다 화인작가대연합회 및 캐나다화인작가연합회 고문. (김혜준, 위의 책, pp.388-389 참고)

13) 廣州출신으로 1983년 캐나다 밴쿠버로 이주. 1987년 加拿大華裔作家協會 창립시 협회를 창립한 5인의 등기이사 중 한 사람. 현재 加拿大華裔作家協會의 이사. (김혜준, 위의 책, p. 385 참고)

은 분명하다. 이주 전 삶의 각본은 이처럼 이주 이후에도 그대로 패턴화되어 삶의 양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무의식 속에 깊숙이 자리한 스트레스는 초자아의 컨트롤에 의해 묻혀 있다가 다시금 자극을 통해 빙산의 꼭대기로 자리이동을 하게 된다. 사실상 극복하지 못한 과거의 모습, 게슈탈트심리학에서 말하는 미해결된 과제와 같은 문제가 작중인물들에게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주자들은 미해결된 과제를 계속해서 이주 후에도 떠안고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주자들은 자신의 타고 난 문화권에서부터 물리적으로 먼 곳으로 이동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고향에서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이 중단해버리고 말았던 여러 다양한 기억들이 있다. 그런 기억은 무의식에 묻어둔 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했던 것일 수도 있다.

강박적으로 자신의 문화에 대해 집착하거나 충돌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보인다. 孫博<sup>14)</sup>의『生死之間』는 캐나다로 이주한 중국 대륙 출신의 친위와 타이완 출신의 샤린린, 그리고 친위의 모친이 함께 지내면서 겪는 가치관의 갈등과 변화를 보여준다. 화자인 친위의 사고와 행동은 중국식 전통과 서구식 관념 사이의 혼란과 이 속에서 문화적으로, 그리고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에서도 복합적으로 소외된 상태의 화인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캐나다와 같이 오랜 동안 다문화사회로 사회를 구성해 온 나라들의 다문화주의 모델은 주류문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 그 가운데 집단 간 상호 존중의 질서가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국가의 초기 형태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다민족, 다문화 사회의 도전에 익숙한 국가들이 주로 채택한 모델인 것이다.<sup>15)</sup> 그러므로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화인들이 문화 스펙트럼의 양 끝단에 가까이 위치한 문화를 경험하면서도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고국의 문화가 배제당하거나 폐기되는 위기는 아니지만, 그 속에서 내적으로 동화와 조화의 갈등을 겪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캐나다 정부는 1970년대 초 다원문화론을 주장하며 소수민족정책의 전면적인 조정을 실시했고 이는 당시 유행하던 ‘병화론(拼花理論)’과 맞물리게 되었다. ‘병화론’은 영국으로부터의 이주민들과 프랑스로부터의 이주민들의 문화가 캐나다를 이끄는 두 개의 축이 된다는 주장이 주된 내용이다. 이로써 캐나다는 미국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다원사회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다.<sup>16)</sup>

14) 上海 출신. 토론토 화인작가협회 회원. 2003~2009년까지 캐나다 중국작가연합회 회장 역임. 1990년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 후 뉴스 보도와 관련된 일에 오랫동안 종사하다가 소설, 산문 및 기타 작품 발표. 주요 작품으로 『回流』, 『小留學生淚灑異國』, 『茶花淚』, 『楓葉國裏建家園』, 『你好! 多倫多』 등. (김혜준, 위의 책, pp.389-399 참고)

15) 손은하,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의 타자화: 재현된 영상물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7권1호,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3.06, p.37.

16) 20世纪70年代初, 加拿大政府提出“多元文化理论”, 反映了其少数民族政策的全面重新定向, 因为这恰同当时日益流行的“拼花理论”不谋而合. “拼花理论”主张加拿大包括两个主导文化, 英裔文化和法裔文化, 这使加拿大有别于美国, 成为一个政治、经济和文化上的多元社会. 除这两大文化之外, 还有一个包括所有其他族群在内的“第三种”力量. 建立在良好意愿之上的“拼花理论”归根结底肯定了长此以来的种族划分, 即认为英法裔族群是“自己人”, 其他族群是“外人”. 在赞扬、歌颂、或容忍族群独特性的同时, 白人主流文化试图改变这种独特性的“内涵”. 此外, 对种族划分的强调很容易导致种族歧视的复活. (趙世玲, 「面對文化歧視的加拿大華人」, 『思想戰線』, 2005年第5期第31卷, 2005, pp.97-99 참고)



### 3) 자존감과 기타 정서

자의식 과잉 혹은 자존감 문제로는 馮湘湘<sup>17)</sup>의 「遺孀」을 예로 들 수 있다. 상가에 찾아 온 내연녀는 복장에서부터 자신이 오히려 미망인인양 행색을 하고 아주 당당하게 들어와 이렇게 말한다. “과도에 휩쓸려 가기 전, 그이가 내게 말했어요. 사실, 자기가 가장 사랑한 사람은 당신이라고.” 내연녀의 자의식 과잉적인 언행은 어디로부터 기인할까. 물론 이토록 짧은 단편소설에서는 그와 같은 전후 서사를 기대하긴 어렵다. 과연 미망인의 당황스럽고 어이없다는 표정은 상상이 가능하다.

또한 일종의 환각상태로 표현되는 작품도 있다. 阿濃<sup>18)</sup>의 「永久的秘密」에서 주인공은 산행을 하다가 길을 잃고 여러 가지 환각 상태를 경험한다. 하필 산행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설정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커피, 토스트, 버터 등을 아침 식사로 하는 여든 살 넘는 중국 노인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여기서의 주인공은 이미 상당 부분 캐나다의 문화와 동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비몽사몽 환각 상태를 직면하고 있다. 자의식 과잉이나 병리적인 환각상태의 경험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은 건장한 정서나 심리 상태를 가진 인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매우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이 소설은 캐나다 화인 작가가 본인의 윗세대를 상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작가는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부모 세대를 떠올리고 반추하는 성찰을 일으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작품에서 나타나듯이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지 한참 된 작중인물의 시각에는 캐나다에서 나고 자란 자식 세대의 캐나다 문화로의 동화가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는 담담하게 말하지만 한 세대의 차이가 아니라 이미 자식들과는 여러 세대만큼의 시차가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반면 劉慧琴<sup>19)</sup>의 「是誰敲響了喪鍾」는 화인을 직접적으로 주인공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캐나다화인소설선집에서 유형화했을 때 다소 어울리지 않는 소재이기는 하지만 주인공인 캐나다인 젊은 군인의 죽음은 역시 타국에서 수없이 과거에 생멸을 했을 이주자 화인들의 상징으로 보일 수도 있다. 동시에 이 소설은 캐나다 화인 작가로서의 작가 자신의 모습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한 사회에서의 주변인의 캐나다의 주류사회 인종인 코카서스인종인 ‘백인’에 대한 관찰인 것이다. 캐나다에서의 화인의 생사는 이 소설에서의 젊은 군인의 타국에서의 생사의 문제에 겹쳐져 나타나면서 일면 삶과 죽음은 인종과 계급을 초월해서 모두 평등한 문제라는 지점으로까지 귀결될 수 있다.

17) 廣東省 電白출신, 1979년 홍콩으로 이주. 1980년대 말 캐나다 토론토로 이주 후 加拿大華裔作家協會 회원이자 토론토 대표를 맡음. 산문집으로 『在水之湄』, 『悠悠我心』, 『人在香港』, 『劍俠非情』 등. (김혜준, 위의 책, pp.382-383 참고)

18) 현 加拿大華裔作家協會 회원으로 부회장 역임. 『生活一瞬間』, 『快樂紅簿仔』 등. (김혜준, 위의 책, p. 383 참고)

19) 1977년 캐나다 이주, 밴쿠버 중화문화센터 이사 및 加拿大華裔作家協會 회장 역임. 현재 加拿大華裔作家協會 및 大華作家協會 고문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동. 『胡蝶回憶錄』, 『尋夢的人』 등. (김혜준, 위의 책, pp.395-396 참고)

이토록 다양한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불안하거나 신경질적이거나 현실에 부적응하는 인물들을 빈번하게 보여주고 있는 까닭은 있을 것이다. 작가들은 자신들이 관찰하는 주변 인물이나 자기 가족이나 혹은 자기 자신에게서 경험한 여러 인격과 그들의 정서적 상태를 창작에 상당 부분 결정적 요소로 반영시켰을 것임에 분명하다. 때로는 이처럼 문화접촉의 경계지대를 유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장의존적(field-dependent)이거나 장독립적(field-independent)이라고 구분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잘 순응하며 자신이 보유한 사회화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문화권에서도 그 누구보다 잘 적응하고 있거나, 혹은 그 모든 환경을 무시하고 여전히 원래의 문화권의 생활양식과 삶의 방향성을 그대로 보수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후자는 마치 기름과 물처럼 이질적인 모습으로 소설에서 묘사되곤 했다.

문화접촉에 관한 키워드 메타검색에 따른 연구결과물들을 살펴보면, 언어교육의 실태 조사와 같은 연구에서는 ‘문화감수성’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문화감수성은 감각적으로 문화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여겨지는데 작중인물들을 통해 살펴 본 바와 같이, 문화 스펙트럼에서 보다 인접한 문화들보다는 스펙트럼에서 멀수록 문화감수성에 의해 감지되는 문화적 차이와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간극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3. 문학적 해석과 의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문학 작품 속에서 화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화접촉이 야기한 유형화된 심리 상태는 우울과 불안, 강박과 스트레스, 자존감과 기타 정서적 문제 등으로 크게 분류되었다. 하지만 작중인물들의 심리적 상태를 이상심리의 기준에서 정서적 문제성이 있는 증상들로만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결국 소설 속 인물들은 작가들의 상상력이 가미된 경험적으로 유추되거나 창조된 인물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작품에서의 인물의 심리 상태를 위와 같이 진단한 것은 이들이 병리적 상태로의 진전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심리적, 정서적 상태로부터 도출되거나 상관관계를 보이게 되는 캐나다 화인 작품들의 특징 파악에 있어서 충분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의 화인은 한국보다 다소 적은 인구에 부산시의 인구 규모보다 훨씬 적은 화인들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계량적 숫자로만 비교하기보다는 비율로 환산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인구 5000만 명에 부산시 인구 대략 300만 명 정도로 추산하더라도 1/16, 캐나다 전체 인구 대비 화인의 비율은 1/17로 적지 않은 수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이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상황들이 앞서 2장에서의 심리 상태로 잘 반영되어 나타났던 것이다.

이들의 심리 상태와 정서 상태가 문학적으로 구현된 양식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즉 우울감과 불안감은 신분적, 문화적 정체감의 혼란을 야기했다. 정체성의 문제는 환상적 요소들과 결합하여 상상속의 산물로서 대체되기도 하고, 환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혼란한 심리 상태를 내적 갈등의 형태로 그려내기도 했다. 그리고 문화접촉을 통한

문화 충돌의 현장을 온 몸으로 체험하면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와 이에 대한 사실적 묘사는 캐나다 화인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인데, 가족 내에서의 동서양 문화의 갈등, 화인집단과 거주국 사람들과의 갈등 등의 형태가 비교적 대표적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주자 집단에서 드물지 않게 관찰되는 가족관계의 재구성과 같은 공동체 영역의 재구조화가 나타났다.

## 1) 환상적 요소와 정체성 문제

캐나다 화인 소설은 여타 화인 소설과 유사한 관점에서 신분의 불안정성이 관찰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중국문화권에서의 경험이 다른 문화권과의 접촉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갈등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드러남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화인 이주자들의 이와 같은 정체성 불안은 항시 관찰되었던 특징이기도 하다.

정체성 문제는 결국 자존감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자기존중감은 심리학에서는 생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정서적 상태라고도 언급된다. 긍정적인 자아에 대한 느낌을 설명하는 자존감은 결국 안정된 정체성으로부터 발현된다. 예를 들면, 盧因<sup>20)</sup>의 『爐邊傳奇』의 주인공과 같은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화자는 밴쿠버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현대 서양이라는 문화적 현실 속에 고대 중국 소설에서의 인물들이 출현한 것 같은 환상이나 상상을 소재로 하고 있다. 명나라의 왕세정이 퍼낸 『劍俠傳』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같은 인물들은 경공술이 뛰어나고 의협심이 강한 인물들이지만, 현대의 독자들에게는 과장되고 허구적인 인물이다. 주인공은 이것을 UFO와 외계인으로 연결시키면서, 고대와 현대, 중국과 서양, 상상과 현실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접촉과 뒤섞임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작품인 것이다. 정체성의 불안을 환상적 사건과 미스터리한 방식의 해결로서 대체시키고 있다.

정체성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작품도 있다. 慧卿<sup>21)</sup>의 『入門』은 화인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를 단속하는 캐나다 경찰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경찰은 밀입국, 불법 체류, 매춘 알선 등 각종 범죄와 불법행위를 일삼는 자들을 체포하려고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다. 수많은 ‘아가씨’들은 대부분 아이를 둔 엄마이자 선량한 시민이다. 이민의 땅인 캐나다에서 갑작스럽게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그녀들이 들어선 문은 그들의 원래의 정체성을 무의식 저편에 숨겨두고 새로운 인생을 위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종용했다.

## 2) 문화 접촉지대의 사실적 묘사

20) 1935년 홍콩 출생. 1952년부터 간행물과 잡지에 투고 시작. 1955년 『文藝新潮』의 영향을 받아 모더니즘 문학운동에 투신. 1951년 문예지를 통해 홍콩 모더니즘 시인 5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됨. 1960년대 가까운 문인들과 함께 『新思潮』와 『好望角』 등의 문학잡지를 창간했음. 단편소설 및 산문 등 다수 작품이 홍콩과 타이완 여러 문학작품 선집에 수록됨. 1973년 캐나다 밴쿠버로 이주. 1987년 梁麗芳 등과 加拿大華裔作家協會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을 지냄. 작품집 『一指禪』, 『溫哥華寫真』 등. (김혜준 외, 『동생이면서 동생 아닌: 캐나다 화인소설선』, 지만지, 2016. pp.385-386 참고)

21) 1962년생으로 杭州 출신. 復旦大學 중국어학과 문학 전공. 1988년 대학 졸업 후 캐나다로 유학을 갔다가 완전 이민. 加拿大華裔作家協會 회원. (김혜준, 위의 책, p. 394 참고)

문화접촉으로 야기된 문화 충돌의 경험은 캐나다 화인 소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물론 상이한 문화의 접경지대 혹은 혼종지대 속에서 이주자들의 스트레스는 극대화되고 있다는 점도 소설에서 부각되었다. 나아가 이와 같은 혼종적 문화충돌과 갈등의 상황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캐나다 화인 소설에서는 문학적 기법에서의 새로운 시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사실을 전달하기에 급급한 듯이 보이기도 할 정도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작중인물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적 스트레스 상황과 불안 등은 동시에 문학이라는 도구로 표현되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는 이주자들의 정서를 광범위하게 대변하고 협조하게는 작가 자신의 문학치료적 도구로서도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亞堅<sup>22)</sup> 『抉擇』은 꿈을 찾아 중국 대륙에서 캐나다로 온 세 젊은이들의 이야기이다. 젊은이들의 사랑이 주된 스토리이지만, 사실상 캐나다의 낯선 환경 속에서 최근 이주해온 중국 대륙 출신의 화인들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 화인 사회의 여러 면면들도 함께 서술하고 있어 상당히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서 문화의 뒤섞임을 담아내고 있다.

앞서의 경우들과 반대의 사실적인 묘사도 나타나는데, 曹小莉<sup>23)</sup>의 『賣車大王愛德華史密斯先生』은 캐나다 이민 후 임대업을 하게 된 화인 부부의 이야기이다. 그들의 건물에 세 들어 살던 에드워드 슈미트라는 백인 남성의 말년 모습을 부부가 관찰하는 시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갑작스런 그의 죽음과 장례식을 통해 화인이든 현지인이든 간에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삶은 모두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캐나다 화인이 캐나다 사회에 융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 특히 작가가 다양한 종족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도 백인 남성을 주인공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 3) 공동체 영역의 재구조화

이민을 통해 새롭게 가족을 구성하거나 혹은 가족성원들이 각기 시간차이를 두고 이민을 오게 되어 극복하기 힘든 문화적 차이를 전제로 다시금 가족으로 재구성 되는 경우도 소설에서 나타난다. 일례로 汪文勤<sup>24)</sup>의 『姓甚名誰』는 캐나다에 정착한 지 십 년을 헤아리는 화자가 고국에 사는 누나의 요청으로 갓 이민 온 가족을 자기 소유의 가게에 딸린 2층집에 묵게 하

22) 廣東省 中山 출신. 1983년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 현재 加拿大華裔作家協會 이사. 주로 문화대혁명과 고향 및 해외 화인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을 썼으며 국내외 신문과 잡지, 여러 종류의 문집 등에 해당 소설이 소개되기도 함. (김혜준, 위의 책, p. 394 참고)

23) 北京 출신 군대 농장병사, 노동자, 해설원, 영어자료 담당자, 대학 영어 강사 등을 지냄. 1984년 캐나다로 이민. (김혜준, 위의 책, pp.394-395 참고)

24) 1996년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 현재 加拿大華裔作家協會 회원. 『生死流』, 『玄緣』, 『捕風的日子』, 『童話裏的童話』 등으로 2008년 冰心 아동문학 신작상 수상 등 경력 있음. (김혜준, 위의 책, pp.392-393 참고)

는 것으로 시작된다. 중국 대륙 출신인 우첸은 개인의 성과 이름에는 풍수가 깃들여 있기 때문에 성명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된다고 믿는다. 이에 따라 우첸은 이민자의 땅인 캐나다에서 영어 이름 짓기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한다. 하지만 화자는 이런 우첸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본다. 함께 캐나다에 살지만 너무도 중국적인 전통적 가치관을 고수하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묘하게 캐나다에 접목시키는 우첸과, 십여 년의 이민 생활 동안 서구식 사고방식을 나름대로 체화한 화자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민을 통한 문화적 혼종의 경험은 한때 자연적으로 가족이었던 이들이 다시금 스스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조율하고 극복하여 화합으로 나아가는 단계를 밟아가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이주의 경험은 외부의 갈등적이고 공격적인 상황 속에서 원가족을 내적으로 더욱 단합시키거나 응집시키는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기도 한다. 陳浩泉의 소설에서의 새로운 가족 구조의 인식은 새로운 문화 속에서의 공동체 구조 및 구성에의 인식의 은유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주자들의 문화접촉으로부터 야기된 경험적 과정은 陳華英의 「鼬鼠爲媒」처럼 사실은 아주 평범할 수도 있지만 陳浩泉의 「他是我弟弟，他不是我弟弟」처럼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재구성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李彦의 「白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다양한 새로운 경험으로부터 오는 자극적인 상황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화인들이 이주국에서 새롭게 공동체를 재구조화 하는 모습도 소설에서 종종 보여진다. 예를 들면 李彦의 「白晝」는 주인공의 서술을 통해 캐나다 화인들이 겪고 있는 새로운 종류의 사회적 여건과 문화적 환경에 대한 경험, 사고, 감정을 공유하고자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집단의 구성과 공동체 영역의 재구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알아보는 것은 이주민의 문화접촉을 통한 감성적 경험과 예측가능한 대응 모형의 구상, 다문화 시대에의 예비적 단계로서의 의미로 읽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 4. 나오며

지금까지 문화접촉을 통한 경험이 문학작품의 작중인물을 통해 구현된 정서와 특징적인 측면을 작중인물을 통해 심리학적 차원에서 고찰해 보았다. 정서적인 차원에서 작중인물들의 심리적 문제들은 문화적 스펙트럼의 비교적 먼 거리에 위치한 두 가지 문화를 경험한 캐나다 화인들의 소설에서는 사실주의적으로 강하게 묘사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정서적으로 분류할 때 우울과 불안, 강박과 스트레스, 자존감과 기타 정서로 구분되었다. 우울과 불안은 신분적 불안정성의 부각과 정체성 서사로 이어지는 인과관계성을 나타냈으며, 강박과 스트레스는 문화 충돌과 스트레스의 사실적 묘사로 나타났고, 자존감과 기타 정서들은 이주 이후의 가족관계의 재구성 and 공동체 영역의 재구조화라는 형태로 전이되었다.

문화접촉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다문화화된 사회에서의 세계시민으로의 인식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다문화, 문화적 혼종, 디아스포라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려는 시도들도 국경을 초월해 넘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정의내림과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로의 이행을 목전에 두고서 해석하려는 유사한 맥락선상에 있다.

본고에서 중점을 둔 것은, 앞서의 설명처럼 문화접촉 현장 속에서의 인간의 반응을 문화접촉을 경험한 사람들에 의한 문학 속에서 찾는 것이었다. 물론 작중인물들이 전적으로 작가의 투영이나 자전적 인물들이라고 고집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학의 서사는 결국 작가의 서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며 비록 그 인물의 창조에는 상당 부분 허구성이 가미되었다 할지라도 소재와 심리적인 것은 개인의 체험과 경험으로부터 유래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문학작품에서 작중인물의 정서적 지표들이 구현되는 양상들을 통해서 고찰한 바,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심리적 상태가 관찰되고 있었다. 이들을 통해, 문화접촉에 의한 문화변용, 문화충격, 문화접변의 현상들은 보다 상이하다고 여겨지는 문화권들의 접촉지대에서 보다 더 의미 있는 탐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인의 캐나다 화인 작가들의 눈과 귀를 통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문화접촉의 현장은 본고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혼란스럽고 치열하지만 그 속에서도 개인의 행복을 찾아가려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여러 정서 상태는 문화의 접경지대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심리상태들의 유형화 작업이었으며 상당 부분 다문화국가들의 다문화 정책들과도 접점을 이룰 수 있는 점이 있었다. 비록 본고에서 주안점을 둔 부분이 작중인물의 심리적 분석이었기에 모두 다룰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이민자, 이주민 등과 관련한 상황이 다분히 화인들이 세계 속으로 나가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희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참고할 만한 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결국 문학을 통해 캐나다 화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본고에서 유형화 한 여러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그들이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조화와 안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하는 기대가 담겨있는 것으로 읽혀질 것이라 전망한다.

## 【참고문헌】

- 김혜준 외, 『동생이면서 동생 아닌: 캐나다 화인소설선』, 지만지, 2016.
- 김용규, 「포스트 민족 시대 혼종과 틈새의 정치학: 호미 바바 읽기」, 『비평과 이론』, Vol.10 No.1, 한국비평이론학회, 2005, pp.29-57.
- 손은하,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의 타자화: 재현된 영상물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7권1호,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3.06, pp.33-65.
- 우석균,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이론들: 통문화, 혼종문화, 이중혼형성」, 『라틴아메리카연구』, Vol.15 No.2,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02, pp.283-294.
- 윤영주, 『한국체류 중국동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1.
- 梁麗芳, 「華人文學團體在中加文學交流上的民間角色: 以加拿大華裔作家協會為例」, 『華文文學』, 第124期, 2014, pp.102-107.
- 李未醉, 「加拿大華僑與華文文學」, 『八桂僑刊』, 2005年第1期, 2005, pp.94-101.
- 汪 銳, 『加拿大新移民作家文化身份研究: 以“多倫多小說家群”為例』, 華中師範大論文, 2016
- 趙世玲, 「面對文化歧視的加拿大華人」, 『思想戰線』, 第5期第31卷, 2005, pp.94-101.
- 陳浩泉 主編, 『楓華文集: 加拿大作家作品集』, Burnaby: 加拿大華裔作家協會, 1999
- 黃萬華, 『美國華文文學論』,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2000)
- 呂 紅, “海外移民文学视点:文化属性與文化身份”, *Chinese America: History&Perspectives*, San Francisco: Chinese Historical Society of America, 2007, pp.153-157.
- Christiane Harzig and Dirk Hoerder with Donna Gabaccia, *What is Migration History?*, Cambridge: Plity Press, 2009.
- Inhye Lee, Cultural Contacts and Intercultural Sensitivity of KFL College Students in the US,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Vol.28, 2017. pp.19-43.
- Lowe, Lisa, *Immigrant Acts: on Asia American Cultural Politics*, Durham: Duke UP, 1996.
- Rey Chow, *Writing Diaspor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3.

##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文化接觸, 加拿大華人, 自我認同, 文化範圍, 混種文化		
	영문	Cultural Contact, Canadian Chinese, Self-identity, Cultural Spectrum, Hybrid Culture		
<div>The Psychological Approach and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s who Experience Cultural Contact through Literary Works</div> <div>Koh, Hye-Lim / Liang, Nan</div> <p>This article focuses on the characters' response in the field of cultural contact, among other processes that move toward cultural transformation through cultural contact. We are exposed to various aspects of cultural contact through news and interviews. Here, we are looking for the reaction of the characters in the novel in the context of cultural contact, in the literature by people who have experienced cultural contact, and the emotional indicators of the characters in literary works. The phenomenon of cultural transformation, cultural shock, and cultural contact by cultural contact will be more visually perceptually and ideologically searched than in the contact zones of cultures considered to be different. The study of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tatus of the cultural experiences of the Chinese who have arrived in Canada after the immigration of the Chinese in the cultural border region is the core of the study.</p> <p>Through the eyes and ears of 16 writers, we can see that the cultural contact scene that we can observe was a process that was confusing and fierce, but it was a process of seeking for personal happiness. However, the narrative of literature is inseparable from the narrator of the writer, and even if the creation of the person has a great deal of fiction,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the material and the psychological originated from the experience and experience of the individual. Therefore, various aspects of emotional and psychological conditions have been observed in the literary works through the emotional indicators of the characters. These results show that the phenomenon of cultural transformation, culture shock, and cultural contact and it can be explored more meaningfully than in the contact zones of cultures considered to be different.</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고혜림 / 高慧琳 / Koh, Hye-Lim		양난 / 梁楠 / Liang, Nan
	소 속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경성대학교 인문대학 중국학과
	Em@il	huilin@naver.com		liang-nan@hanmail.net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8년 05월 17일		심 사 일 2018년 05월 21일
	수 정 일	2018년 06월 17일		게재확정일 2018년 06월 22일